

매크로 경제학회 SCOPE 커리큘럼

데이터에서 레짐을 읽는 학회 — 10주 커리큘럼

작성자 : 박정우 ·

작성일 : 2026년 7월

Table of Contents

학회 정체성과 최종목적지	4
최종목적지 : 검증된 판단 기록 = 레짐 포트폴리오	4
편향을 깨는 세 가지 장치	4
공통 리서치 파이프라인 (모든 주차 고정)	5
Hermes 프롬프트	6
공통 분석 프레임워크 : 5단계 레짐 분석	6
팀 구성 : 4개 영역팀	7
매크로 Data Book (공용 지표 대장)	8
개인 매매일지 (Macro Trading Journal) — 매주, 전원	8
규칙	8
기록 양식	9
10주 로드맵	9
매주 세션 구성 (2시간)	10
Week 1 : Onboarding & Setup	10
Week 2~4 : Research Verification Workshop — 리서치 뜯어보기	10
목표	10
주차별 운영	10
사전 과제 (공통 파이프라인 적용)	11
발표 (팀당 20분)	11
5~10주차 운영 원리 (읽고 시작할 것)	11
원리 1 : 팀은 "레짐"이 아니라 "영역"을 나눠 갖는다	11
원리 2 : 레짐 뷰는 버전 관리되는 살아있는 문서다	12
원리 3 : 종합 담당(Lead Strategist)은 매주 돌아가며 맡는다	13
Week 5 : Regime Workshop — ① 레짐 정의	13
목표	13
사전 과제	14
세션	14
Week 6 : Price Signal Check — ② 가격 시그널 검증	14
목표	14
팀별 분담	14
세션	15
Week 7 : Asset Mapping — ③ 수혜·피해 자산 + ④ 투자 아이디어	15
세션 첫 10분 : 트리거 점검 1차	15
목표	15
사전 과제	15
세션	15

Week 8 : Red Team Workshop — 반증 훈련	15
목표	16
사전 과제	16
세션	16
Week 9 : Regime View 2.0 + 자산배분 뷰 확정	16
세션 첫 10분 : 트리거 점검 2차 + 이벤트 플레이북 대조	16
목표	16
세션	16
Week 10 : Final Pitch + 매매일지 결산 (Demo Day)	17
Final Pitch (팀당 15분)	17
매매일지 결산 (전원, 1인 5분)	17
Best Research & Best Journal Award	17
Recommendation Tracker 기록 (필수)	17
최종 산출물	17
이 설계의 핵심	18
부록 : 주차별 AI 프롬프트 모음	19
프롬프트 7원칙 (모든 프롬프트에 공통)	19
Week 2~4 — 리서치 뜯어보기 (리포트 검증)	19
Week 5~9 — 영역별 탐다운 해석 프롬프트	20
Week 10 — 최종 스토리 검수	22
종합 담당(Lead Strategist) 전용 — AI CIO 종합 프롬프트	23
부록 D : AI 투자위원회 시뮬레이션 (멀티 AI 롤플레이)	25
핵심 원칙 : AI 위원회의 하우스뷰를 받아 흡수한다	25
AI 자산운용사 구성 (롤플레이 정원)	25
운영 방식 두 가지	25
주차 연결	26
프롬프트 ① — 투자위원회 라운드테이블 (방식 A)	26
프롬프트 ② — 개별 위원 (방식 B용, 역할별 대화창)	26
프롬프트 ③ — CIO 종합 (방식 B 마무리)	27
AI 위원회 하우스뷰를 흡수할 때 함께 볼 것 (발표 필수)	27

학회 정체성과 최종목적지

“뉴스·유튜브 해설·남의 전망이 아니라, 원천 데이터에서 직접 레짐을 읽는 학회”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답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리서치로서 무가치하다. 남과 다른 판단은 남이 요약해 준 정보가 아니라 직접 모은 원천 데이터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이 학회는 금리·유동성·경제정책·실물·물가·무역분쟁·지정학·원자재·크립토포까지 모든 거시 데이터를 직접 수집·정제하고, 그 데이터만 근거로 현재 시장 국면(레짐)을 스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무효화 트리거로 계속 검증한다. 더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능동적 해석을 거쳐 궁극적으로 실제 투자 아이디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최종목적지 : 검증된 판단 기록 = 레짐 포트폴리오

이 학회를 마치면 각자에게 남는 것은 기록이다.

- **개인** — “매크로 판단 이력서” : 10 주간 나의 레짐 판단 이력 + 그 판단으로 실행한 매매일지 + 적중/오답 복기. 금융권 면접에서 “저는 5주차에 ○○ 레짐으로 판단했고, 무효화 트리거를 ○○으로 걸었고, 결과는 이랬으며, 틀린 부분은 이 전제가 무너져서였다”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증거물.
- **학회** — 레짐 뷰 트랙레코드 : 기수마다 학회의 레짐 판단·자산배분 뷰와 그 사후 성과가 Recommendation Tracker 에 쌓인다. 다음 기수 1주차에 전기수 판단의 답을 맞춰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핵심 원칙 : 평가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논거→결과의 연결”이다. 10주는 운으로도 수익이 나는 기간이다.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어느 전제가 무너졌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만 이 포트폴리오가 된다.

편향을 깨는 세 가지 장치

장치	커리큘럼 반영
① 원천 데이터 (매크로 Data Book)	4개 영역팀이 매주 담당 지표를 직접 수집·업데이트, 학회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셋 공유
② 5단계 레짐 분석	모든 산출물(팀 발표·레짐 뷰·자산배분·매매일지)의 공통 골격
③ 사후 검증	무효화 트리거 상시 점검(7·9주차) + 매매일지 + Recommendation Tracker

AI는 탐다운 교사로 쓴다 — 2~4주차엔 팀의 리포트 분석이 실제 데이터상 놓친 지점을 AI가 데이터로 짚어 주고, 5~10주차엔 AI가 경력 있는 매크로 투자자(시니어 PM·CIO) 역할로 그 주 단계의 레짐 판단과 종합까지 직접 내리며, 그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전부 공개한다. 190개 자동수집 지표와 vault에 학습된 검증 논문이 근거로 불기 때문에 환각 여지는 구조적으로 줄여 두

었다. 팀이 할 일은 그 판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이다 — 자기 언어로 재서술하고, 모르는 지점은 질문해 과외식으로 설명을 받고, 수치는 원천에서 한 번 확인한 뒤 학회 레짐 뷰로 확정한다. 지표 자동 수집(대시보드) 등 수집 보조로도 얼마든지 활용한다.

공통 리서치 파이프라인 (모든 주차 고정)

모든 사전 과제는 아래 5단계를 따른다. 순서가 중요하다 — 데이터가 먼저, AI의 탐다운 해석이 다음, 팀의 흡수·재검증·최종 판단이 마지막이다.

① Data Book 업데이트 (자동수집기 + 수동 슬롯) → Obsidian vault

- 담당 영역 지표는 자동수집기가 매주 공개 API 에서 받아 표/수치로 묶어 준다 (저장 경로 예 : Macro/3_Liquidity/DataBook_3_날짜.md). 팀은 자동으로 못 받는 수동 슬롯만 채운다
- 규칙 : **해석 문구 금지**. 숫자·원문·출처 링크만 (판단은 다음 단계의 몫)
- 분량 : 핵심 수치 15~30 개 수준으로 압축 (PDF 통째로 넣지 않는다)
- 소스 : FRED · ECOS · KRX · DART · 관세청 · TradingView 등 (부록 A 참조)

② AI 탐다운 해석 — 레짐 판단 초안 (AI)

- Data Kit 을 AI(경력 있는 매크로 투자자 페르소나)에게 제공하고, 5 단계 레짐 분석 구조로 AI 가 먼저 판단한다 — 시장 컨센서스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데이터가 지지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도록 지시한다 (부록 C 프롬프트 사용)
- 필수 산출 : (1) AI 가 내린 레짐 판단과 추론 과정 전체(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단계별로) (2) AI 스스로 지목한 가장 약한 전제 1 개 (3) 확신도(상/중/하)
- Interpretation_W[N].md 로 vault 에 저장. AI 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다 — 다음 단계에서 팀이 반드시 자기 언어로 재서술한다

③ 팀 재서술 + 심화 질문 (사람이 흡수)

- AI 의 해석 초안을 팀이 자기 언어로 다시 쓴다 (받아 적기 금지 — 이해 못 하면 재서술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지점은 최소 1 개 이상 질문으로 남긴다
- 질문에 AI 가 왜·비유·단계별로 다시 설명한다 (과외식 응답). 재서술·질문·응답을 GapCheck_W[N].md 로 vault 에 저장 — 이제는 팀이 못 채운 이해의 빈틈을 채우는 기록이다

④ 검증 + 팀 토론 (사람이 최종 판단)

- AI 해석이 새로 끌어온 수치는 원천 소스에서 재확인한다 (환각 필터).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면 억지로 반대하지 않는다 — 데이터로 재확인해 맞으면 그대로 인정한다
- AI 해석 중 채택한 것과 수정·기각한 것, 그 이유를 기록하고 팀 최종 결론을 Final_W[N].md 로 저장. 최종 판단권자는 언제나 팀이다

⑤ Vault 자체가 곧 Knowledge Base

- DataKit → Interpretation → GapCheck → Final 4 개 노트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
- 트리거 점검(7.9 주차)과 다음 기수 답안 맞추기 때 "그 시점 vault 를 그대로 열어서" 대조한다

발표 필수 공개 항목 (매주) : 데이터끼리 어긋난 지점 / Hermes 지적 중 기각한 것과 그 이유 / 시장 컨센서스와 내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근거.

Hermes 프롬프트

주차별 완성형 프롬프트는 부록 C : 주차별 AI 프롬프트 모음에 있다. 기본 철학은 이렇다 — AI 는 경력 있는 매크로 투자자처럼 데이터 기반 해석을 먼저 제시하는 tap다운 교사다. 다만 결론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다 — 팀이 재서술·질문·재검증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아래는 매주 쓰는 tap다운 해석 요청의 축약 골격이며, 부록 C의 주차별·영역별 프롬프트가 완성형이다.

당신은 15년 경력의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아래 데이터만 근거로 (시장 컨센서스·언론 논조를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데이터가 지지하면 인정하세요), 이번 주 단계에 대한 당신의 레짐 판단을 먼저 내리세요. 결론부터 말하고, 그 결론에 이른 추론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세요 — 어떤 지표를 왜 그렇게 읽었는지 단계별로. 마지막에 확신도(상/중/하)와, 이 판단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전제 1개를 스스로 지목하세요. [데이터 붙여넣기]

공통 분석 프레임워크 : 5 단계 레짐 분석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프로세스)"라면, 이 프레임워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논리 구조)"다. 모든 산출물(팀 발표, 학회 레짐 뷰, 자산배분 뷰, 매매일지 논거)은 아래 5단계 구조를 따른다. 커리큘럼 5~9주차가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밟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계	내용	핵심 질문	주차
① 레짐 정의	현재 시장 국면 규정 (확장/둔화/침체/회복/디스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등)	현재 시장은 어떤 레짐인가?	5주
② 가격 시그널 검증	국채금리·DXY·유가·금·구리·주가지수·신용스프레드·크립토가 그 판단을 지지하는지 교차 확인	가격도 내 레짐 판단을 지지하는가?	6주
③ 수혜·피해 자산 선정	레짐에서 강한 자산 / 약한 자산 구분	어디에 돈이 몰릴까?	7주
④ 투자 아이디어 구체화	자산 직접 매수 vs 관련 기업 vs 밸류체인 비교 (예: 금 ETF vs 금광주, AI → 반도체 vs 전력설비)	가장 효율적인 노출 구조는?	7주

단계	내용	핵심 질문	주차
⑤ 반증 조건 설정	가설 폐기 조건을 미리 명시 (= 무효화 트리거)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를 버리는가?	5:8:9주

핵심은 거시경제 → 시장 → 자산 → 리스크 관리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⑤의 무효화 트리거는 7:9주차 유효성 점검과 개인 매매일지의 손절 규칙을 담당한다.

팀 구성 : 4 개 영역팀

거시 데이터 전체를 4개 영역으로 나눠 팀별로 담당한다. 인원이 10명이면 2팀은 3명, 2팀은 2명으로 배정한다. 세 영역(성장·물가/정책·유동성)은 각자 국면(레짐)을 읽는 기둥이고, 네 번째 영역은 지정학·전체시황이다 — 개별 영역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시황을 읽으면서, 동시에 지정학·무역 충격이 그 시황을 언제 깨는지를 무효화 트리거로 관리한다. 전체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 종합(Lead Strategist)도 이 영역 담당 팀이 맡는다. 특히 원자재는 “레짐을 읽는 가격 신호”이므로 구리·유가·금을 각각 성장·물가·유동성에 배치해 가격 교차검증을 붙였다. (v6) 담당 영역은 팀별로 고정되지 않고 5~9주차 매주 로테이션한다 — 네 영역을 전원이 한 번씩 경험한다.

팀	담당 영역	핵심 커버리지 (+ 배정 원자재)
1	Growth & Cycle (성장·경기)	GDP·GDPNow·PMI·산업생산, 고용(NFP·JOLTS·청구건수·임금·Sahm Rule), 소비·초과저축·연체율, 주택, 재고·설비투자·기업이익, 침체 지표(커브 역전·LEI), 한국 수출·산업활동·소비·고용 / 구리(Dr.Copper)로 성장 판단 교차검증
2	Inflation·Policy·Rates (물가·정책·금리)	CPI·PCE·PPI·슈퍼코어·임금, Fed·점도표·FOMC·잭슨홀, 국채금리·커브·실질금리·텀프리미엄, 기대인플레이션(BEI·5y5y), 재정·QRA·국채 입찰, 글로벌 중앙은행(ECB·BOJ·PBOC), 한국은행·한미 금리차·한국 CPI / 유가·천연가스로 인플레이션 경로 교차검증
3	Liquidity·Credit·Sentiment (유동성·신용·심리)	M2·순유동성(Fed B/S-RRP-TGA)·QT, 단기자금(SOFR·레포), 크레딧(HY·IG·SLOOS·사모크레딧·CRE), 심리·포지셔닝(VIX·MOVE·CFTC·펀드플로우), 암호화폐(ETF·스테이블코인·온체인·김치프리미엄·규제), DXY·엔캐리·원/달러·외국인 수급 / 금(실질금리·안전선호)으로 리스크선호 교차검증
4	Geopolitics & Market Overview (지정학·전체시황)	전체 시황 : 4개 영역을 관통하는 시장 전체 국면, 주도 섹터·순환매 흐름, 위험선호 방향, 주요국 증시·자산군 전반의 상대강도 / 지정학·무역 : 미국 정치·관세·수출통제·산업정책, 무역분쟁·공급망 재편, 지정학(중동·러우·중앙아시아·대만해협·남중국해·한반도), 중국·일본·유럽·인도, 니치 원자재(우라늄·희

팀	담당 영역	핵심 커버리지 (+ 배정 원자재)
		토류·농산물·물류 운임(BDI·SCFI), AI CAPEX→전력 수요, 한국의 지정학 노출 / 학회 전체 ⑤ 무효화 트리거 소유 + 그 주 종합(Lead Strategist) 담당

각 팀의 상세 지표 체크리스트(= Data Book 수집 목록)는 **부록 B**에 있다. 모든 팀에 한국 파트가 필수로 포함된다.

매크로 Data Book (공용 지표 대장)

- 4 개 팀이 매주 담당 지표의 최신값·직전 추이·출처 링크를 업데이트하는 **학회 단일 데이터셋** (Obsidian 공용 vault)
- 모든 발표·레짐 뷰·매매일지 논거는 Data Book 의 수치를 인용한다 — 출처 없는 수치는 발표에 쓸 수 없다
- 이 수집은 자동화되어 있다 — Data Book 자동수집기(macro-databook)가 매주 FRED·ECOS·KOSIS·관세청·야후 등 공개 API 에서 약 130 개 지표를 수집해 팀별 Obsidian 노트(DataKit)로 저장한다. GitHub Actions 로 매주 자동 실행되며 팀원은 옵시디언으로 받아 본다
- 따라서 팀원의 일은 “수집”이 아니라 “해석”으로 옮겨간다. 도구가 자동으로 못 채우는 항목(ISM·FOMC 문서·지정학 등 정성·유료 소스)만 “수동 입력 슬롯”으로 남아 담당자가 매주 채운다. 설치·사용법·팀별 지표 분담은 별도 「Data Book 운영 가이드」 참조

개인 매매일지 (Macro Trading Journal) — 매주, 전원

매크로 판단을 실제 계좌의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장치이자, 최종목적지인 “판단 기록”의 몸통이다.

규칙

- **대상** : 전원. 개인 주식계좌 (실계좌 권장, 소액·모의투자 허용 — 금액이 아니라 기록이 목적)
- **주기** : 매주 최소 1 건 기록. 매매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관망의 논거)도 기록 대상이다. 뇌동매매 방지 위해 실행한 매매를 근거와 함께 기록. 매매하려다 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근거도 함께 기록.
- **논거 규칙** : 모든 기록은 학회 레짐 뷰 또는 자기 팀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한다. “느낌” “뉴스에서 봐서”는 논거가 아니다. 다만, 개인이 학회 뷰 이외의 판단으로 실행한 투자는 허용한다.
- **무효화 조건 필수** : 진입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포지션을 접는가”를 먼저 적는다

- **발표** : 매주 세션 첫 20 분, 3~4 명 × 5 분 로테이션 (10 주간 전원 2~3 회 발표)
- **평가 기준** : 수익률 자랑 금지. "논거→결과 연결이 논리적이었나 / 무효화 조건을 지켰나"만 평가한다

기록 양식

항목	내용
날짜 / 자산.종목	예: 2026-09-14 / KODEX 미국채10년, 삼성전자 등
방향.비중	매수/매도/관망, 계좌 내 비중
매크로 논거	어떤 레짐 판단·지표에서 나온 결정인가 (학회 레짐 뷰 또는 Data Book 수치 링크)
개별 논거(매크로 이외)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가
무효화 조건	이 판단을 폐기할 트리거 (예: 코어 CPI 2회 연속 반등 시 청산)
결과	손익, 트리거 발동 여부
복기	논거가 맞아서 번 것인가, 운인가 / 틀렸다면 어느 전제가 무너졌나

Obsidian에 Journal/[이름]/W[N].md로 저장하고 해당 시점 레짐 뷰에 링크한다. 10주차에 이 기록을 묶어 **개인 매크로 판단 이력서**를 만든다.

10 주 로드맵

주차	내용	산출물
1	온보딩 — 팀 배정, 지표 지도·Data Book 세팅, 매매일지 규칙, 미니 실습	Obsidian vault, 매매일지 양식
2~4	리서치 뜯어보기 — 매크로 전망 리포트를 원천 데이터로 검증 (2주 1·2팀 / 3주 3·4팀 / 4주 전 팀)	리포트 해부 노트 × 4
5	① 레짐 정의 — 영역별 데이터 발표 → 학회 레짐 뷰 1.0 + 무효화 트리거	레짐 뷰 1.0
6	② 가격 시그널 검증 — 시장 가격으로 레짐 뷰 교차검증	검증 매트릭스, 뷰 수정
7	③④ 수혜·피해 자산 + 투자 아이디어 + 트리거 점검 1차	자산 매트릭스, 노출 구조 비교
8	반증 워크숍 (Red Team) + 이벤트 플레이북	대안 레짐 시나리오, 이벤트 대응표

주차	내용	산출물
9	레짐 뷰 2.0 + 자산배분 뷰 확정 + 트리거 점검 2차	레짐 뷰 2.0, 자산배분 뷰
10	Final Pitch + 매매일지 결산 + Tracker 기록	판단 이력서, 트랙레코드

매주 세션 구성 (2 시간)

매매일지 발표 20분 (3~4명 로테이션) → 팀 발표 + Q&A 70분 → 전체 토론·레짐 뷰 업데이트 30분.

AI 활용 두 갈래 : (1) 각 팀은 사전 과제에서 **부록 C**의 주차별 Hermes 프롬프트로 자기 판단을 검증한다. (2) 5주차부터는 **부록 D**의 AI 투자위원회 시뮬레이션을 매주 돌려 "AI 하우스뷰 vs 우리 뷰"를 대조한다 (사람 판단 먼저 → AI 위원회 → 대조 순서).

Week 1 : Onboarding & Setup

- 팀 배정 (A~D, 2~3 명씩) + 지표 지도 배포 (부록 B 체크리스트)
- Obsidian 공용 vault·Data Book 구조 세팅, 무료 리소스 맵 배포 (부록 A)
- 매매일지 규칙·양식 배포, 계좌 준비 (실계좌 권장·모의 허용)
- 미니 실습 : 운영진이 준비한 지표 10 개(최근 CPI·고용·금리 등)로 파이프라인 ①~⑤ 전 과정 1 회 체험 — 레짐 판단 → Hermes 검증 → 최종 판단까지
- 전기수 Recommendation Tracker 리뷰 (2 기부터) : 전기수 레짐 뷰·자산배분·대표 판단의 답을 맞춰 보고, 어느 전제가 맞고 틀렸는지 역추적. **이 세션이 기수 간 축적의 핵심 장치다**

Week 2~4 : Research Verification Workshop — 리서치 뜯어보기

목표

남의 전망을 원천 데이터로 검증하는 훈련. 리포트의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본다. 여기서 익힌 "데이터로 남의 논리를 검증하는 눈"을 5주차부터 자기 판단에 적용한다.

주차별 운영

주차	발표
2주차	1·2팀 (성장 / 물가·정책)
3주차	3·4팀 (유동성 / 지정학·전체시황)
4주차	전 팀 (10분×4)

사전 과제 (공통 파이프라인 적용)

- ① 리포트 선정 + Data Kit 준비 : 매크로 전망 리포트 1 편 선정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증권사 연간·분기 매크로 전망, IMF WEO 등) + 리포트가 다루는 핵심 수치를 원천 소스에서 재수집해 Data Kit 으로 정리
- ② 리포트 정독 + 팀 요약·분석 : 팀이 리포트를 한 번 읽고, 핵심 주장과 근거를 자기 언어로 요약·분석한다 (블라인드 자체 해석은 하지 않는다 — 리포트 해석도 처음이라 자체 해석이 오히려 오답을 만든다)
- ③ AI 검증 : 팀의 요약·분석과 Data Kit 을 AI 에게 함께 주고, 리포트(와 우리 요약)가 실제 데이터상 놓친 지점을 AI 가 찾아낸다. AI 는 결론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추론 과정 전체를 보여준다 (부록 C 프롬프트)
- ④ 팀 디깅 : AI 가 짚어준 지점을 팀이 원천 데이터로 직접 파고들어 확인한다 (환각 필터 겸 심화 학습)
- ⑤ Obsidian : 리포트 요약 · AI 검증 결과 · 팀 디깅 결과 · 배운 점

발표 (팀당 20 분)

① 리포트 소개와 핵심 주장 ② AI가 짚어낸, 리포트가 데이터상 놓친 지점 ③ 팀이 디깅으로 확인한 결과 (수용/기각과 이유) ④ 우리가 애널리스트였다면 (추가할 데이터 / 수정할 결론 / 놓친 리스크)

5~10 주차 운영 원리 (읽고 시작할 것)

2~4주차는 각 팀이 자기 영역 리포트를 독립적으로 해부했다. 5주차부터는 **같은 팀들이 하나의 학회 레짐 뷰를 함께 만든다**. 여기서 “팀이 어떻게 나눠 발표하고, 누가 결론을 내는가”가 헛갈리기 쉬우므로 세 가지 원리를 먼저 못박는다.

원리 1 : 팀은 “레짐”이 아니라 “영역”을 나눠 갖는다

금리 레짐·유동성 레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레짐은 학회 전체의 단 하나의 판단**이고, 팀은 그 하나의 판단에 자기 영역의 근거를 대는 역할이다. 두 개의 축으로 보면 명확하다.

- 세로축 = 팀/영역 (5~9 주차 매주 로테이션, v6) : 인원(1~4 팀)은 10 주 내내 고정이지만, 담당 영역(성장 · 물가·정책 · 유동성 · 지정학·전체시황)은 5~9 주차 동안 매주 한 칸씩 라운드로빈으로 이동한다. 4 주 주기라 5~8 주에 전원이 4 개 영역을 한 번씩 경험하고, 9 주는 5 주와 같은 배정으로 돌아온다.
- 5 주(①레짐정의) — 1 팀 지정학·전체시황(종합담당) · 2 팀 성장 · 3 팀 물가·정책 · 4 팀 유동성

- 6 주(②가격검증) — 1 팀 성장 · 2 팀 물가·정책 · 3 팀 유동성 · 4 팀 지정학·전체시황(종합담당)
- 7 주(③④자산) — 1 팀 물가·정책 · 2 팀 유동성 · 3 팀 지정학·전체시황(종합담당) · 4 팀 성장
- 8 주(Red Team) — 1 팀 유동성 · 2 팀 지정학·전체시황(종합담당) · 3 팀 성장 · 4 팀 물가·정책
- 9 주(2.0 확정) — 1 팀 지정학·전체시황(종합담당) · 2 팀 성장 · 3 팀 물가·정책 · 4 팀 유동성 (5 주와 동일 배정)
- **가로축 = 주차/단계 (학회 전체가 한 걸음씩)** : 5 주 ①레짐정의 → 6 주 ②가격검증 → 7 주 ③④자산.

매주, 각 팀은 “그 주의 단계를, 자기 영역 데이터로” 수행한다. 아래 표의 각 칸이 곧 그 팀이 그 주에 발표할 내용이다.

팀	5주 ① 레짐 정의	6주 ② 가격 검증	7주 ③④ 자산
성장	경기 사이클 위치 (확장/둔화/침체) — 구리로 교차검증	구리·경기민감 섹터·산업재 주가가 지지하는가	주식 경기민감 vs 방어, 성장 vs 가치
물가·정책	인플레 경로 + 정책 국면 (인하 사이클? 재정 지배?) — 유가로 교차검증	국채금리·커브·BEI·유가가 그 국면을 지지하는가	채권 듀레이션·커브 (장기채 vs 단기채)
유동성	유동성 방향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가 — 금으로 교차검증	DX·크레딧·크립토·금이 지지하는가	달러·크레딧·크립토·금 배분
지정학·전체시황	시장 전체 시황은 어디에 있는가 + 그것을 깰 외부 충격은 무엇인가	니치 원자재·운임이 보내는 공급 신호, 시황 전반의 상대강도	지정학 헤지·해외자산·니치 원자재

각 주 발표(12분×4) 뒤 마지막 30분 전체 토론에서 세로 4칸을 하나로 합쳐 학회 레짐 뷰(또는 자산배분)를 만든다. 영역끼리 어긋나는 것이 오히려 알맹이다 — 성장은 “둔화”인데 유동성은 “위험선호 과열”이면 그 자체가 레짐이다 (“펀더멘털이 약한데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국면”). 팀은 재료, 레짐은 요리다. 지정학·전체시황 담당 팀은 세 영역이 내놓은 재료를 시장 전체 시황과 대조하고, 그것을 깰 수 있는 외부 충격을 트리거로 붙인다.

원리 2 : 레짐 뷰는 버전 관리되는 살아있는 문서다

5~10주 동안 매크로 상황은 실제로 바뀐다. 5주에 정한 레짐이 7주엔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뷰는 돌에 새기지 않고 버전으로 관리한다.

- **레짐 뷰 1.0** = 5 주 확정

- **6·7·8 주** = 그대로 굴리되, 새 데이터가 무효화 트리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수정 → 수정 이력 로그 누적
- **레짐 뷰 2.0** = 9 주 확정 (모든 수정 반영)

매주 전체를 다시 논쟁하지는 않는다. **경미한 갱신**(트리거 미발동)은 새 수치만 기록하고 뷰 유지, **정식 수정**(트리거 발동 또는 Red Team이 논리를 깬)만 근거 로그와 함께 뷰를 바꾼다. 단계는 5→6→7로 기본 전진하되, 데이터가 뒤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일방통행이 아니다).

이 수정 이력이 최종 산출물의 알맹이다. “5주엔 연착륙으로 봤는데 7주에 고용이 꺾여 뷰를 수정했다”는 기록이야말로 면접에서 꺼낼 “판단을 데이터로 계속 검증했다”의 증거다. 안 바뀌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데이터 최신화 (필수) : 5~10주 내내 매주, 각 팀이 세션 전 자기 Data Book 슬라이스를 갱신한다. 발표 논거는 반드시 그 주 최신 수치를 쓴다. 부담은 2티어제로 통제하고(1티어만 매주 손볼), 매 세션 첫 5분 “지난주 대비 뭐가 바뀌었나” 스캔으로 바뀐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 주 테이블에 올린다.

원리 3 : 종합 담당(Lead Strategist)은 매주 돌아가며 맡는다

4개 팀 발표를 하나의 학회 뷰로 합치는 “종합”을 매주 한 팀이 돌아가며 맡는다. 이것을 운영진이 고정으로 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금융권에서 가장 값나가는 한 줄이 “상충하는 시그널을 하나의 매크로 뷰로 종합했다”이다. 이게 CIO·전략가·리서치센터장이 실제로 하는 일이다. 종합을 운영진만 하면 그 훈련을 운영진만 가져간다. 로테이션하면 5~10주 동안 모든 팀이 최소 1회씩 “이번 주 총괄”을 경험한다.

- 그 주 지정학·전체시황 담당 팀에서 1명 지정 (v6 — 전체 시황을 이미 보고 있는 팀이라 종합에 가장 가깝다. 팀 로테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4주 이하 만에 전원 1회+ 소화)
- 역할 : 4개 팀 발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번 주 레짐 뷰는 이렇다”는 종합 초안을 작성 → 전체가 반박·수정 → 확정
- 운영진은 대신 해주지 않고 품질 관리만 한다 (종합 논리가 튼튼한지 찌르는 역할)
- 종합 담당은 자기 영역에 갇히지 않는다 — 성장·물가·유동성까지 전부 엮어야 하므로 가장 좋은 훈련 자리다

★ **취업용 경험으로 정식 기록** : 종합 담당을 맡은 주는 개인 트랙레코드·판단 이력서에 “제N주차 Lead Strategist — 학회 레짐 뷰 종합 총괄”로 남긴다. 면접에서 “저는 4개 영역의 상충 시그널을 종합해 학회 매크로 뷰를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력 한 줄이다. 담당한 주의 뷰가 사후에 맞았는지까지 Tracker로 따라붙는다.

Week 5 : Regime Workshop — ① 레짐 정의

목표

Data Book에서 출발해 각 팀이 담당 영역의 판단을 내리고, 전체 토론으로 학회 레짐 뷰 1.0을 확정한다. 그 주 배정에 따라 세 팀은 각자 국면(성장/물가·정책/유동성)을 읽어 오고, 지정학·전체시황 배정 팀은 시장 전체 시황을 읽어 온 뒤 “이 시황을 깰 지정학·무역 충격 + 무효화 트리거”를 함께 가져온다 (v6). 반드시 무효화 트리거를 포함한다. (팀 분담·종합 담당 방식은 앞의 “5~10주차 운영 원리” 참조)

사전 과제

- 파이프라인 ①~⑤ : 담당 영역 핵심 지표 15~30 개 정리 → 팀 자체 레짐 판단 (5 단계 구조, 무효화 트리거 3 개 이상 초안) → Hermes 검증 → 최종 판단 → vault 저장

세션

- 매매일지 발표
- 팀 발표 : 영역별 레짐 판단 — 골격은 5 단계 순서 (+ 데이터 불일치 지점, Hermes 지적 중 기각한 것)
- 질의응답 :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 시장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가 /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이 판단을 버릴 것인가
- 종합 담당(Lead Strategist) 주도 전체 토론 → 4 개 영역 판단을 하나로 합쳐 **학회 레짐 뷰 1.0** 확정 (5 단계 양식, 무효화 트리거 명시. 예: “코어 CPI 2 회 연속 반등 시 금리 인하 전제 폐기”, “원/달러 1,4XX 돌파 시 외국인 수급 전제 재검토”) → Obsidian 저장

Week 6 : Price Signal Check — ② 가격 시그널 검증

목표

데이터로 만든 레짐 뷰를 **시장 가격**으로 교차검증한다. 가격이 내 판단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시장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다 — 어느 쪽인지 데이터로 따진다.

팀별 분담

팀	검증 대상 가격 변수
성장	주가지수·경기민감 vs 방어 섹터, 산업재·소재 상대강도, 구리(Dr.Copper)
물가·정책	국채금리(2Y·10Y·커브), BEI·기대인플레이션, 금리 선물(FedWatch), 유가·천연가스
유동성	DXY·주요 통화, 신용스프레드(HY·IG), 암호화폐(BTC·ETH·스테이블코인), 금·은
지정학·전체시황	주요국 증시·섹터 상대강도, 니치 원자재(우라늄·희토류·곡물), 해운 운임(BDI·SCFI),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

세션

- 첫 5 분 : 지난주 대비 데이터 변화 스캔 (그 주 종합 담당이 진행)
- 각 가격 변수에 대해 **지지 / 중립 / 모순** 3 단계 판정 → 학회 검증 매트릭스 완성
- “모순” 판정이 나온 변수는 전체 토론 : 레짐 뷰를 수정할 것인가, 가격이 잘못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인가 (근거 필수)
- 종합 담당이 수정 사항을 레짐 뷰에 반영하고 수정 이력을 남긴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Week 7 : Asset Mapping — ③ 수혜·피해 자산 + ④ 투자 아이디어

세션 첫 10 분 : 트리거 점검 1 차

5주차 이후 발표된 지표·이벤트(FOMC, CPI, 고용 등)를 무효화 트리거와 대조한다. 미발동 → 뷰 유지 / 발동 → 해당 항목 수정.

목표

레짐 뷰에서 강한 자산 / 약한 자산을 분류하고, 가장 효율적인 노출 구조를 찾아 **개인 매매일지**의 포지션과 직접 연결한다.

사전 과제

- 팀별 수혜·피해 자산 매트릭스 : 현재 레짐에서 강한 자산·산업 / 약한 자산·산업 + 근거 수치
- 노출 구조 비교 1 건 이상 : 같은 테마에 대한 노출 최소 2 개 비교 (예: 금 ETF vs 금광주, AI → 반도체 vs 전력설비 vs 데이터센터 REIT, 지수 vs 개별주) — “왜 이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가” 한 단락 정당화
- Hermes 검증 : 빠진 대안·숨은 리스크 지적받기

세션

- 학회 공동 자산 매트릭스 완성
- **매매일지 연결** : 각자 자기 포지션을 레짐 뷰에 매핑 — 내 포지션은 학회 뷰와 정합인가, 어긋난다면 왜인가 (어긋나는 것 자체는 허용, 논거 없는 것만 불허)
- 그 주 종합 담당이 자산 매트릭스를 학회 자산배분 뷰 초안으로 종합

Week 8 : Red Team Workshop — 반증 훈련

목표

자기 판단을 스스로 깨 보는 훈련. 확증편향은 데이터를 모아도 생긴다 — **반대편에 서 보는 것**이 유일한 백신이다.

사전 과제

- **팀 맞바꿔 공격 (Red Team)** : $A \leftrightarrow C$, $B \leftrightarrow D$ 로 상대 팀의 Final 노트를 받아, 데이터로 상대 논리의 빈틈을 공격하고 **대안 레짐 시나리오 1 개**를 작성한다 (Hermes 가 하던 Gap Finder 역할을 사람이 직접 수행)
- **이벤트 플레이북** : 향후 2 주 캘린더 이벤트(FOMC·CPI·고용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상회/부합/하회) 자산 반응 예상표를 사전 작성 — 9 주차에 실제 결과와 대조

세션

- Red Team 발표 × 4 : 상대 팀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 + 대안 시나리오
- 공격받은 팀의 방어 × 4 : 데이터로 반박하거나, 수용하고 뷰 수정 예고
- 이벤트 플레이북 공유 → 다음 주 점검 예약

Week 9 : Regime View 2.0 + 자산배분 뷰 확정

세션 첫 10 분 : 트리거 점검 2 차 + 이벤트 플레이북 대조

7주차 이후 지표·이벤트를 트리거와 재대조하고, 8주차 플레이북의 예상과 실제 자산 반응을 비교한다 — 맞춘 것과 틀린 것 모두 기록.

목표

새 데이터와 Red Team 반증을 반영해 **레짐 뷰 2.0**을 확정하고, 이를 자산배분 뷰로 번역한다.

세션

- 팀별 업데이트 발표 10 분 × 4 : 1.0 대비 무엇이 왜 바뀌었나 (수정 이력 필수)
- **자산배분 뷰** : 금리(듀레이션) / 주식(스타일·지역) / 달러·원화 / 원자재 / 크레딧 / 암호화폐 각각에 대해 비중확대·중립·비중축소 + 한 줄 근거 + 무효화 조건 → **전체 투표로 확정**
- Hermes 최종 점검 : 자산배분 뷰의 내적 모순(예: 금리 하락 전망인데 달러 강세 전망) 지적받고 해소
- 그 주 종합 담당이 레짐 뷰 2.0 최종본을 정리·확정 (5~10 주 종합 담당 로테이션의 마지막 주)

Week 10 : Final Pitch + 매매일지 결산 (Demo Day)

Final Pitch (팀당 15 분)

레짐 뷰의 스토리를 발표한다 : 1.0 판단 → 가격 검증 → 반증 → 2.0 수정까지, 무엇이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가 핵심. + 담당 영역의 남은 무효화 트리거.

매매일지 결산 (전원, 1 인 5 분)

- 10 주 기록 요약 : 총 판단 수, 논거 적중/오답, 무효화 조건 준수 여부
- 최고의 판단 1 건 + 최악의 판단 1 건 복기 — “맞아서 번 것인가 운인가 / 틀렸다면 어느 전제가 무너졌나”

Best Research & Best Journal Award

평가 : 데이터 검증 엄밀성 / 논거→결과 연결 / 무효화 조건 준수 / 복기의 정직함 / Obsidian 정리 / 발표력. 수익률은 평가 항목이 아니다.

Recommendation Tracker 기록 (필수)

항목	내용
학회 레짐 뷰 2.0 / 확정일	
자산배분 뷰 (자산군별 비중 방향)	
핵심 논거 3줄	
무효화 조건	
개인별 대표 판단 1건 (이름·자산·방향·논거)	
당시 Data Book 스냅샷 링크	

다음 기수 1주차에 이 Tracker를 열어 답을 맞춘다. “지식이 축적되는 학회”라는 차별점은 노트가 아니라 **판단의 사후 성과 기록**에서 나온다.

최종 산출물

- **개인 매크로 판단 이력서 (PDF 2~3 장)** — 레짐 판단 이력 + 대표 매매 복기 3 건 + 무효화 트리거 운용 기록 + **Lead Strategist 담당 이력**(말은 주차·종합한 뷰·사후 적중 여부). 금융권 면접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사용
- 개인 매매일지 원장 (Obsidian)

- 학회 레짐 뷰 1.0 / 2.0 + 수정 이력
- 자산배분 뷰 1 장 (무효화 조건 포함)
- Recommendation Tracker (기수 간 인수인계 대상)
- Obsidian Knowledge Base (Data Book → 레짐 뷰 → 매매일지 그래프)

이 설계의 핵심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모은 데이터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록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Data Book(수집) → 팀 해석(판단) → Hermes(빈틈 검증) → 레짐 뷰(합의) → 가격 시그널(시장 검증) → Red Team(반증) → 매매일지(실행) → 트리거·Tracker(사후 검증)

이 사이클이 2~4주차에 남의 리서치 해부로 훈련되고, 5~9주차에 학회 자신의 레짐 뷰에, 매주 개인 매매일지에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가 끝나면 각자에게는 면접에서 꺼낼 수 있는 판단 이력서가, 학회에는 다음 기수가 답을 맞춰 볼 트랙레코드가 남는다.

부록 : 주차별 AI 프롬프트 모음

AI(Hermes — GPT·Gemini·Claude 등)는 이 학회의 핵심 도구다. 역할은 이렇다 : AI는 경력 있는 매크로 투자자로서 데이터 기반 해석과 결론을 직접 내리는 tap다운 교사다. 레짐 정의부터 자산 배분, 4개 영역 종합까지 AI가 판단하고, 그 추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낸다. 팀은 그것을 재서술·질문으로 흡수하고 수치를 원천에서 확인한 뒤 확정한다. 아래 프롬프트들은 AI가 결론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컨센서스를 억지로 반대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프롬프트 7 원칙 (모든 프롬프트에 공통)

- ① 역할을 구체적으로 준다 — “분석해줘”가 아니라 “당신은 15년 경력의 회의적인 매크로 리스크 매니저다”
- ② 데이터가 먼저, 판단이 나중 — Data Kit·팀 판단을 붙여넣고 “이것만 근거로”
- ③ 컨센서스를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 인터넷 상식·언론 논조는 근거로 쓰지 않되, 시장 컨센서스는 데이터로 검증 대상이다. 데이터가 컨센서스를 지지하면 인정하고, 반박하려면 반드시 데이터로 두 번 이상 재검증한 근거를 댄다 (억지 반박 금지)
- ④ 반박이 아니라 빈틈 —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논리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목적
- ⑤ 출력 구조를 지정 — 번호·표·확신도(상/중/하), 근거 먼저 결론 나중
- ⑥ 환각 차단 — 데이터에 없는 수치를 지어내지 말 것, 추정은 “추정” 표기, 모르면 “판단 불가”
- ⑦ 자기교정 요구 — 마지막에 “당신 답에서 가장 약한 주장 1개”를 스스로 지목하게 함

Week 2~4 — 리서치 뜯어보기 (리포트 검증)

우리는 리포트를 한 번 읽고 팀 언어로 요약·분석한다. AI는 그 요약·분석과 원천 데이터를 근거로, 리포트(와 우리 요약)가 놓친 지점을 찾아내고 왜 그런지 추론 과정을 전부 보여준다.

[역할]

당신은 15년 경력의 매크로 투자자이자 바이사이드 리서치 검증 데스크입니다. 리포트가 데이터상 놓친 지점을 실제 수치로 찾아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대전제]

- 아래 데이터만 근거로 삼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세요.
- 리포트나 우리 요약이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결론이어도 무조건 반박하지 마세요. 데이터로 재확인해 맞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다르게 판단할 때만 근거를 대세요.
- 데이터에 없는 수치는 지어내지 마세요. 추정은 '추정'으로 표기하세요.

[입력]

원본 리포트의 핵심 주장 : <<요약>>
우리 팀의 리포트 요약·분석 : <<노트>>
재수집한 Data Kit : <<수치>>

[요청]

1. 리포트가 데이터보다 낙관/비관으로 치우친 지점 — 우리 요약도 함께 놓쳤는지 확인
2. 우리 팀의 요약·분석 자체가 데이터를 과잉/과소 해석한 부분
3. 리포트도 우리도 다루지 않았지만,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한 변수
4. 위 지적들에 대해 결론만 말하지 말고, 어떤 지표를 근거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추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사고 과정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력 형식]

각 항목에 확신도(상/중/하)와 근거 수치를 붙이세요. 데이터에 없으면 '추정' 표기.
마지막에 : 이 검증에서 가장 확신도가 낮은 지적 1개와 그 이유.

Week 5~9 — 영역별 탑다운 해석 프롬프트

이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묶음이다. 매주 각 영역 담당 팀은 AI에게 그 영역 그 주 단계에 맞는 역할을 주고, AI가 경력 있는 매크로 투자자로서 레짐 판단을 먼저 내리게 한다. 공통 골격은 아래와 같고, 표는 주차·영역별로 [역할]과 [요청]만 바꾼 것이다.

공통 골격 (모든 영역·주차에 적용)

[역할] 당신은 15년 경력의 {영역} 전문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그 주 미션}

[대전제]

- 데이터만 근거로 삼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결론까지 내리세요 — 검증만 하지 말고 실제 투자자처럼 판단하세요.
- 시장 컨센서스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컨센서스를 지지하면 그대로 인정하세요. 다르게 판단할 때만 데이터로 두 번 이상 재확인한 근거를 대세요.
- 데이터에 없는 수치는 지어내지 마세요. 추정은 '추정'이라 표기하세요.

[입력] 데이터 : <<Data Book 붙여넣기>>

[요청] {주차·영역별 핵심 질문 — 아래 표 참조}

[출력]

- 결론부터, 그다음 추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여주세요 — 어떤 지표를 왜 그렇게 읽었는지 단계별로.
- 확신도(상/중/하) 표기.
- 마지막에 이 판단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전제 1개를 스스로 지목하세요.

그다음 팀은 : 이 해석을 자기 언어로 재서술 + 질문(AI가 왜·비유·단계별로 재설명) → 데이터로

재검증 → 채택/수정/기각 최종 결정 → Final_W[N].md 저장. 사람이 팀을 맞바꿔 서로의 영역을 새로 익히게 하지 않는다 — 두 달 배운 학부생끼리의 교차 학습보다, 각자 AI가 제공하는 경력자 수준의 해석을 흡수하는 편이 빠르다.

주차·영역별 [역할 미션] + [핵심 질문]

주차	성장	물가·정책	유동성	지정학·전체시황 (종합담당)
5주 ①레짐정의	경기 사이클 위치 (확장/둔화/침체/회복)를 판단하고, 구리 가격으로 교차 검증하세요.	인플레 경로와 Fed 정책 국면(인하 사이클?/재정 지배?)을 판단하고, 유가로 교차검증하세요.	유동성 방향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지 판단하고, 금 가격으로 교차검증하세요.	시장 전체 시황을 먼저 규정하세요 — 지금 무엇이 주도하고, 위험선호는 어느 방향이며, 자금은 어느 섹터·자산군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다음 그 시황을 깰 수 있는 지정학·무역 충격을 찾고, 측정 가능한 무효화 트리거 3개 이상을 제시하세요.
6주 ②가격검증	구리·경기민감 섹터·산업재 주가가 우리 성장 판단을 지지/중립/모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세요.	국채금리·커브·BEI·유가가 우리 인플레·정책 판단을 지지하는지 판정하세요.	DXY·크레딧·크립토키금이 우리 유동성 판단을 지지하는지 판정하세요.	주요국 증시·섹터 상대강도, 니치 원자재, 해운 운임이 우리 시황 판단을 지지/중립/모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공급 신호가 무효화 트리거를 건드리는지 점검하세요.
7주 ③④자산	경기민감 vs 방어, 성장주 vs 가치주 중 이 레짐에서 강한 쪽과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채권 듀레이션·커브(장기채 vs 단기채) 중 이 레짐에 맞는 포지션을 판단하세요.	달러·크레딧·크립토키금 배분 중 이 레짐에 맞는 노출 구조를 판단하세요.	이 시황에서 지정학 헤지·해외자산·니치 원자재 중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주도 섹터와 순환매 기대 섹터를 구분해 제시

				하세요.
8주 Red Team (입력 다름)	우리 성장 판단을 무너뜨리세요. 단, 성장 데이터만으로는 성장 판단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물가·정책(실질금리·커브·기대인플레이), 유동성(크레딧 스프레드·수급·포지셔닝), 지정학·시황(외부 충격·섹터 상대강도)에서 우리 성장 결론과 모순되는 신호를 찾아 그것으로 공격하세요.	우리 물가·정책 판단을 무너뜨리세요. 물가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성장(수요·고용·임금이 물가를 끌어내리는지), 유동성(유동성 방향이 물가 경로를 바꾸는지), 지정학·시황(공급·원자재 충격)에서 모순 신호를 찾아 공격하세요.	우리 유동성 판단을 무너뜨리세요. 유동성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성장(실물이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지), 물가·정책(정책 반응이 유동성을 되돌리는지), 지정학·시황(리스크 이벤트가 수급을 뒤집는지)에서 모순 신호를 찾아 공격하세요.	우리 시황 판단과 무효화 트리거를 무너뜨리세요. 성장·물가·유동성 세 영역 데이터만으로 지금 시황이 외부 충격 없이도 설명되는지 보이세요 — 설명된다면 우리가 매긴 지정학 프리미엄은 과대평가입니다. 반대로 세 영역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놓친 진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9주 2.0확정	1.0 대비 새 데이터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판단하고, 자산배분 비중(확대/중립/축소)과 근거·무효화 조건을 제시하세요.	1.0 대비 새 데이터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판단하고, 자산배분 비중(확대/중립/축소)과 근거·무효화 조건을 제시하세요.	1.0 대비 새 데이터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판단하고, 자산배분 비중(확대/중립/축소)과 근거·무효화 조건을 제시하세요.	1.0 대비 시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단하고, 자산배분 비중(확대/중립/축소)과 근거·무효화 조건을 제시하세요.

8 주 Red Team 만 입력이 다르다 (중요)

5·6·7·9주는 자기 영역 Data Book만 넣으면 된다. 그러나 8주 Red Team은 자기 영역 데이터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성장 데이터만 보고 성장 판단을 반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영역의 결론을 무너뜨리는 증거는 언제나 다른 영역에 있다 (성장을 깨는 것은 실질금리·크레딧 스프레드·포지셔닝이지, 또 다른 성장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8주에는 [입력]에 (1) 전 영역 Data Book 전체 (2) 학회 레짐 뷰 1.0 전문 (3) 내가 공격할 영역의 Final 노트를 모두 넣고, 위 표의 8주 미션을 [요청]에 붙인다. 공격의 근거가 자기 영역 안에서만 나왔다면 그 Red Team은 실패한 것이다.

Week 10 — 최종 스토리 검수

[역할]

당신은 최종 발표 직전의 냉정한 검수자입니다. 논리보다 '일관성과 증거'를 봅니다.

[입력]

최종 스토리 (레짐 뷰 1.0 → 가격검증 → 반증 → 2.0 수정 → 자산배분) : <<전문>>

[요청]

1. 1.0에서 2.0으로 바뀐 부분의 '왜 바뀌었나'가 데이터로 설명되는지
 2. 발표에 쓰인 수치 중 출처(Data Book 링크·원문 페이지)가 빠진 것
 3. 무효화 조건이 실제로 발동 가능한 형태로 쓰였는지 (관측 불가/모호한 것 색출)
 4. 이 스토리가 시장 컨센서스와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 차이가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억지 반박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지적)
 5. 심사위원이 가장 먼저 찌를 약점 3개와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된 답 여부
- 질문 형태로만 제시하세요 — 우리가 답을 준비하도록.

종합 담당(Lead Strategist) 전용 — AI CIO 종합 프롬프트

종합도 AI가 한다. 4개 영역의 판단을 하나의 레짐 뷰로 묶는 것은 CIO의 일이고, 그 CIO 역할을 AI가 맡는다. 종합 담당(Lead Strategist)은 AI가 내린 종합을 받아 자기 언어로 재서술해 전체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과 반박을 받아 데이터로 확인한 뒤 그 주 학회 레짐 뷰로 확정한다. 종합 담당이 훈련하는 것은 “혼자 짜내는 능력”이 아니라 “CIO급 종합을 이해하고 방어하는 능력”이다.

[역할]

당신은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의 CIO입니다. 4개 영역 애널리스트가 올린 이번 주 판단을 받아,
하나의 학회 레짐 뷰로 종합해 확정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종합을 회피하지 마세요 — 충돌하는 시그널 앞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CIO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전제]

- 아래 4개 영역 판단과 전 영역 Data Book만 근거로 삼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결론까지 내리세요.
- 시장 컨센서스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지지하면 그대로 인정하세요.
- 데이터에 없는 수치는 지어내지 마세요. 추정은 '추정'이라 표기하세요.

[입력]

1 성장 : <<요약>> 2 물가·정책 : <<요약>>
3 유동성 : <<요약>> 4 지정학·전체시황(시황 판단 + 무효화 트리거) : <<요약>>
전 영역 Data Book : <<수치>>

[요청]

1. 4개 영역이 합의하는 지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하세요 (어느 영역 vs 어느 영역, 무엇에 대해).
2. 충돌은 남겨두지 말고 데이터로 판정하세요 — 어느 쪽이 맞는지 근거와 함께 결론을 내리세요.
3. 이번 주 레짐의 이름과 정의를 확정하세요 (예: '유동성 완화·심리 미반영 국면').
4. 그 레짐을 떠받치는 핵심 논거 3줄.
5. 측정 가능한 숫자로 된 무효화 트리거 3개 이상.
6. 위 전부에 대해 추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세요 — 어느 영역의 어떤 수치를 왜 그렇게 읽었고, 충돌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했는지 단계별로.

[출력]

결론(레짐 이름과 정의) 먼저, 그다음 추론 과정 전체, 확신도(상/중/하) 표기.

마지막에 : 이 종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전제 1개와, 그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려줄 조기 경보 지표.

부록 D : AI 투자위원회 시뮬레이션 (멀티 AI 롤플레이)

부록 C의 Hermes가 “한 명의 검증자”라면, 이것은 **AI들이 하나의 자산운용사 투자위원회를 이뤄 매주 하우스뷰를 도출하는** 장치다. 여러 관점(전략가·PM·리스크)을 동시에 부딪히게 해서, 우리 팀 판단이 놓친 각도를 한꺼번에 드러낸다.

핵심 원칙 : AI 위원회의 하우스뷰를 받아 흡수한다

AI 위원회는 6명의 서로 다른 관점(전략가·PM·리스크)이 부딪혀 하나의 하우스뷰를 도출한다. 이 하우스뷰는 우리가 받아 흡수할 결론이다 — 다만 서로 다른 모델을 쓰는 이유가 있다 : 같은 모델끼리는 학습 코퍼스가 같아 너무 쉽게 합의해 버린다(수렴 편향). 위원들이 어디서 쉽게 합의했고 전원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쓰는 법이다.

- **모델 분산 원칙** : 역할을 서로 다른 모델(GPT·Gemini·Claude)에 나눠 맡긴다 — 코퍼스가 다르면 수렴 편향이 줄어든다
- **대조 발표** : 매주 “AI 하우스뷰 vs 우리 뷰가 갈린 지점 + AI 위원회가 놓친 것”을 발표에 포함

AI 자산운용사 구성 (롤플레이 정원)

역할	발언 범위	임무
CIO (의장)	전체 종합	하우스뷰를 책임지고 표결을 주재, 소수의견까지 정리
Chief Macro Strategist	거시·레짐	현재 레짐을 정의하고 큰 그림을 제시
금리·채권 PM	듀레이션·커브	금리 관점에서만 판단, 다른 위원과 충돌 감수
주식 PM	스타일·섹터·지역	주식 관점의 수혜·피해와 밸류에이션
원자재·FX PM	실물자산·통화	원자재·달러·원화 관점
CRO (리스크)	반대 전담	하우스뷰가 틀렸을 경우만 생각 — 파괴 시나리오·무효화 조건

운영 방식 두 가지

- **방식 A (간편)** — 한 AI에게 위원회 6인을 한 번에 롤플레이시켜 회의록을 뽑는다. 빠르고 매주 쓰기 좋다.
- **방식 B (심화·권장)** — 역할을 서로 다른 모델·대화창에 나눠 맡긴다 (예: GPT=주식 PM, Gemini=채권 PM, Claude=CRO). 사람이 사회를 보며 라운드로 붙인 뒤 CIO 프롬프트로

종합. 모델이 다르면 학습 코퍼스가 달라 수렴 편향이 줄어든다 — 이게 방식 B의 핵심 이점이다.

주차 연결

매주 그 주 단계에 맞춰 위원회를 소집한다 : W5=레짐 하우스뷰, W6=가격검증 하우스뷰, W7=자산배분 초안, W9=최종 자산배분. 인간 팀 판단 → AI 위원회 → 대조의 순서를 지킨다.

프롬프트 ① — 투자위원회 라운드테이블 (방식 A)

[역할 — 다중 롤플레이]

당신은 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투자위원회 전체를 연기합니다. 아래 6명이 각자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로 실명으로 발언합니다. 각 위원은 회의 중 최소 한 번은 다른 위원에게 반대해야 합니다. 예의상 동의하지 마세요 — 실제 위원회는 치열합니다.

[위원 명단]

- CIO (의장): 최종 하우스뷰를 책임진다. 종합과 표결을 주재.
- Chief Macro Strategist: 현재 레짐을 정의한다.
- 금리·채권 PM: 듀레이션·커브 관점에서만 발언.
- 주식 PM: 스타일·섹터·지역 관점.
- 원자재·FX PM: 실물자산·통화 관점.
- CRO (리스크): 하우스뷰가 틀렸을 경우만 생각한다. 반드시 반대 시나리오와 무효화 조건을 제시.

[대전제]

- 아래 [데이터]와 [이번 주 논점]만 근거. 인터넷 상식·시장 컨센서스 배제.
- 없는 수치 금지(추정 표기). 모르면 위원이 '그 데이터가 없다'고 말하게 하세요.

[입력]

데이터 : <<Data Book 요약>>

이번 주 논점 : <<예: '현재 레짐을 정의하라' / '자산배분을 정하라'>>

[진행 순서]

1. 각 위원이 2~3문장으로 자기 관점의 판단을 발언 (근거 수치 포함)
2. 위원 간 반박 라운드: 최소 3건의 실질적 의견 충돌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
3. CRO가 하우스뷰의 가장 큰 리스크와 무효화 조건 3개 제시
4. CIO가 종합: 하우스뷰 + 소수의견(누가 왜 반대했는지) + 표결 결과
(예 4 대 2) + 확신도(상/중/하)

[출력] 회의록 형태, 각 발언 앞에 위원 이름, 마지막에 CIO 요약 박스.

주의: 위원들이 너무 쉽게 합의하면 실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견을 살리세요.

프롬프트 ② — 개별 위원 (방식 B 용, 역할별 대화창)

당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금리·채권 PM]입니다. 오직 금리·듀레이션·커브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다른 자산군은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래 데이터만 근거로 (컨센서스·언론 배제, 없는 수치 금지), 이번 논점 <<...>>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2~3문장 + 근거 수치로 제시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주식 PM, 원자재 PM)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과, 그에 대한 당신의 재반박을 미리 적으세요.

[데이터 붙여넣기]

* 역할명만 바꿔 각 모델/대화창에 배포한다 (주식 PM, 원자재·FX PM, CRO ...).

프롬프트 ③ — CIO 종합 (방식 B 마무리)

당신은 투자위원회 의장(CIO)입니다. 아래는 각 PM과 CRO가 따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당신의 일은 새 판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해 하나의 하우스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 의견 붙여넣기]

정리: 1) 공통 합의 2) 충돌 지점과 각 입장 3) CRO의 무효화 조건 4) 최종 하우스뷰 + 소수의견 + 표결(가정) + 확신도.

합의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남은 이견은 소수의견으로 명시하세요.

AI 위원회 하우스뷰를 흡수할 때 함께 볼 것 (발표 필수)

- AI 위원들이 너무 빨리 합의한 지점은 어디인가? (수렴 편향 신호 — 모델이 같은 코퍼스를 공유할 때 나타난다. 그 지점만 데이터로 한 번 더 확인한다)
- AI 위원 전원이 놓친 변수는? (같은 코퍼스의 공통 사각지대 — 있으면 다음 주 Data Book 수집 항목에 추가)
- CRO가 제기한 리스크 중 **우리 무효화 트리거에 없던 것**이 있는가? → 있으면 트리거에 추가
- AI 하우스뷰를 우리 레짐 뷰로 확정하기 전, 근거 수치를 원천에서 확인했는가 (환각 필터. 사후에 Tracker로 답 맞추기)